

社說

도의회 동의권 삭제 논의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정책 협치' 첫걸음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삭제에서 시작된 듯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의회의 동의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논의 중이면서 그 이유는 도의회의 사업권 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부수하는 개발사업은 사업주의 권한만큼이나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침해받는 도민들의 권리 보호도 중시해야 하기에 개발사업이 환경을 비롯한 공익성을 결여한 채로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인정된다. 여기서 도의회의 동의권은 현행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대한 감시권으로서 작동해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그럼에도 최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정책 협치'를 자신의 고유권한을 망각한 채 제주도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수많은 개발활동에 대해 전반이 극명히 갈려 도민사회가 크고 작은 갈등으로 얼룩진 것을 성숙하게 풀어나가는 중심에 의회가 있지 못할만큼 개발사업권을 성역화하고 집행기관과 감시기관 간의 권력분립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간 제주도의 개발활동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로 진행되지 못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사실상 개발사업이 제주도민의 공익과 조화될 수 있는 부대조건을 통해 사업주의 사익과 도민의 공익의 조화를 모색해왔다. 그간 조건부 동의로 인해 추진된 사업들이 도민들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좀 더 엄격한 변화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가 앞장서서 동의절차를 없애겠다고 논의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자체를 반성하고 중지하라.

불법조업 단속 어려움 이해되나 손 놓지 말아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중국이 올해 들어 자체적으로 자국 어선들에게 출어제한 및 금어기를 설정했으나, 그러한 제한조치 기한이 끝나지 않아 우리 해역으로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금어기 해제 이후 적극적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당국의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단속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조업제한을 받고 있는 어선에 승선하는 것도, 승선원과 대면하는 것조차 코로나19를 이유로 자제한다면 단속위험성이 낮아진 것을 기회로 악용할 사례들이 증가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중국어선 단속 및 검거실적자세가 0건에 불과하고, 불시에 이행해야 하는 검문검색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실상 행해지지 못했다. 자국 내 출어제한조치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무리한

조업의지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는 물론 '씩씩이 조업'에 따른 어족자원의 고갈도 뻔한 상황이다.

올해 제주어장은 중국발 저염분수의 대거 유입과 유독 갑각류 증가, 가을태풍으로 수온염도 변화로 기존에 형성된 어장이 많은 영향을 받아 어종별 어민들의 어획이 극명히 엇갈렸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한 수중환경 변화만으로도 어획량 차이가 커지는 까닭에 근래의 전지구적 기후변화를 시시각각 감지해 제주 인근 어장의 변화를 세심하게 지켜봐야 하는 중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자칫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친다면 간헐적으로 들어다쳐 종류분별씩씩이하면서 제주어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복이나 어려운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눈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속을 위한 방역 조치를 최대한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검문단속이 시급하다.

하수도 경영관리 효율성·재정건전성 꺾는다

도 상하수도본부, 사업특별회계 중·장기 계획 수립...원가 절감 방안 등 마련 방침

막대한 투자 자원 확보 위해 요금 현실화도 불가피

제주도가 도내 하수도 경영관리 효율화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현공인)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생산원가분석 등 세부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향후 주요 투자사업 계획 및 재무 전망, 그리고 경영관

리계획을 기초로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 현대화사업, 하수도관망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에 비해 원가가 높은 원인을 분석해 원가 절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막대한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향후 경제

성 추이를 보면서 요금 현실화율을 불가피하게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내실 있게 하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나가면서 하수도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16일 비탈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제주도의회는 이날 개최한 임시회 본회의장 모든 의석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탈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을 90명에서 60명으로 줄여 진행했다.

“공격적 예산 편성 통해 제주경제 도약 기반 마련”

좌남수 의장, 제387회 임시회 개최사서 확장 재정 강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좌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해해졌다”며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차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입까지 초도화된 위기 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박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이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진을 해야 하고,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좌 의장은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좌 의장은 “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도는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5일까지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387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업무보고와 함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사후 관리 욕외광고물안전관리단 운영

제주도 욕외광고물안전관리단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욕외광고물 관련 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욕외광고물안전관리단은 2014년부터 (사)제주도욕외광고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도내 동·서·남·북·중·남부 등 현장관리조 등 민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리단은 재난재해 시 욕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해 위험 광고물에 대한 사전 철거 및 보수는 물론 악천후 시에도 긴급 출동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욕외광고물안전관리단은 지난 8월 제9호 태풍 '바비'와 지난 9월 제10호 태풍 '타이식' 복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노후 욕외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총 41건의 태풍 피해 욕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제2회 전국청소년 4·3 영어스피치 대회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일은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4·3이 남긴 평화와 인권이 가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라며, 제2회 전국청소년 4·3 영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합니다.

2020. 9. 9.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 주 제: 4·3의 진실과 교훈, 인류평화, 인권신장
 - 4·3의 역사적 진실과 교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4·3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나 기억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
 -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
- 참가자격: 대한민국 청소년(전국 중·고교(대안학교 포함) 재(휴)학 학인이 가능한 자)
- 참가방법: 개인(팀)이나 단체 불가
- 대회일시(본선): 2020. 11. 14.(토) 14:00
- 대회장소: 제주4·3평화공원내 4·3평화교육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주 최: 제주4·3평화재단 ·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 주 관: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0. 9. 9(수) ~ 10. 12(월) 18:00까지
 - 제출내용: 발표원고(국문8영문), 동영상 파일(녹음파일도 가능) 각 1부 ※ 동영상 제출자 가정
 - 발표분량: 중학생 3분~4분, 고등학생 4분~5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p43@hanmail.net)
- 시 상: 20명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대상	교육부장관	1명	1,000,000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등학생부	1명 500,000
		중학생부	1명 500,000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등학생부	2명 300,000
		중학생부	2명 300,000
장려상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회장	고등학생부	4명 200,000
		중학생부	4명 200,000
입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등학생부	4명 200,000
		중학생부	4명 200,000
입선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장	고등학생부	5명 100,000
		중학생부	5명 100,000

□ 특전: 대상 수상자는 2021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외행사 참여 기회 제공
 ※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jeju43peace.or.kr> 문의전화: 064-723-4307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제3차 신규·갱신 인증 신청안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5.6.4)에 따라 2020년 신규·갱신 인증사업자 선정은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논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9.

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장

- 신청기간: 9.1(화) ~ 10.23(금)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신청사실사 *코로나19사태로 집합설명회 대신 1:1 상담 진행)
- 신청대상
 - 1) 신규인증 -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
 - 2) 인증갱신 - ①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20.12.26 만료되는 경영체 ② 인증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인증기업
-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1차 농산물 변경 시, 신규인증 신청
- 인증자격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제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된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농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형태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 인증표시 가능 - 인증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명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후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50% 이상으로 하되, 지정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정 사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명 확인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년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명 - 최근 2년간 평균 농가소득: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표표 등으로 인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명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임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인증신청 서류(www.제주6차산업.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 인증신청 접수: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 직접 제출(제주시 청년로 213-65, 2층) 또는 우편접수(2020.10.23(금) 18:00 도착에 한함)
- 문의처: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 메일: stormand@jeju6th.kr / 전화: 064-722-7917 / 팩스: 064-722-7919

NH NongHyup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흑한우명품관 하나로마트 개점 1주년 기념 축산물할인행사

2020. 9. 18(금) ~ 9. 20(일)

장소: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 주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8421 (삼성여고 동쪽)

- 사골용 50%
- 불고기용 20-35%
- 산적용 20-30%
- 구이용 20-30%
- 돼지고기(냉동) 15%

하나로마트개점 1주년 기념 경품 추첨

2020년 9월 20일(일) 19:30



소고기는 판매장에서 구입 후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제품 소진 시 조기에 판매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축협농협동조합